

“모래알 세뭇 30여년 몰두”

이젠 해설 달기 작업... 시대에 맞는 역경 거듭 돼야

저자와의 만남

80 화엄경 완역·출간한 무비스님

“무조건 읽어보길 권합니다. 특히 저의 이번 화엄경 완역은 전부 한글로 이루어졌으니 뜻을 짚어보며 읽지도 말고 무조건 읽어보길 권합니다. 자주 책을 접하지 않던 이도 열흘이던 일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열흘만 투자하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치있는 인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작해보길 권합니다. 인내를 갖고 읽다 보면 생애 최고의 가치있는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최근 80권 화엄경을 완역, 민족사에서 전12권으로 펴낸 무비스님은 큰 일을 끝내고 난 후의 탄압함과 두려움 속구르러 올을 여지로 짚어두고 독자들에게 무조건 일독을 권하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무비스님의 이런 말뜻에는 ‘경전은 어렵다’라든지 ‘부처님의 주옥같은 말씀’이라는 경외심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선입관을 버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먹고 입고 보고 느끼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곧 화엄이며, 화엄경의 세계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우리들 삶의 자세를 되돌아보라는 경책의 뜻도 담고 있다.

이상생활이 화엄세계

흔히 화엄경은 경전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40종 80권이라는 방대한 양도 그렇거니와 감찰하고 웅대한 교설에 당황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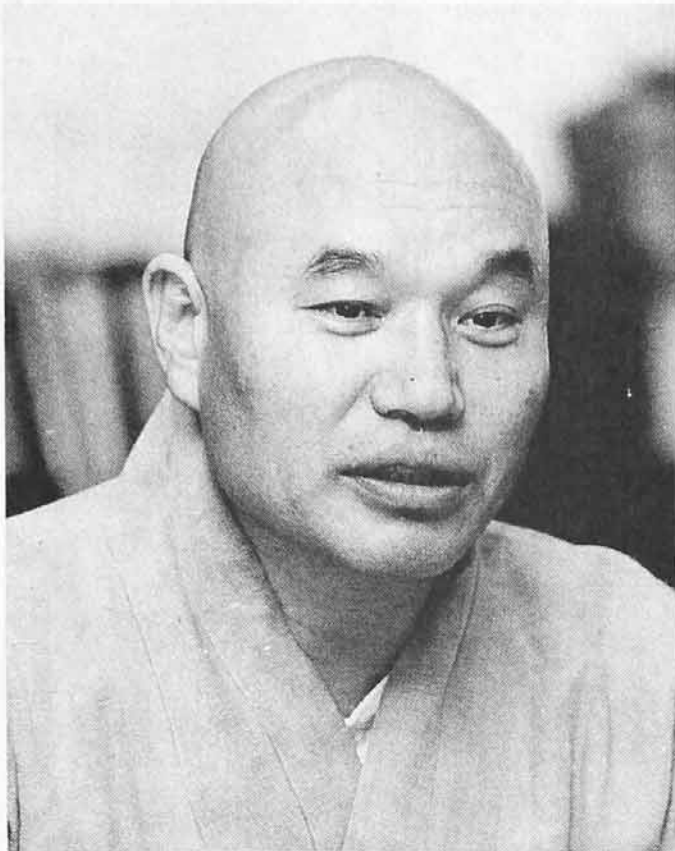
법회 때마다 암송하는 삼귀의가 화엄경 정행품에 담겨 있고, 불교의 핵심교리인 사성제 또한 이 경전에 가장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불자가 그리 흔치 않다.

그러나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화엄사상은 불교와 민족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을 정도로 우리들 사상과 삶속에 깊이 배어있는 경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인 고은은 화엄경을 일컬어 ‘우주의 경전’이며, 무명과 어둠을 눈부시게 밝히는 ‘태양의 경전’이라고 이를 불렀다.

완역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렸다. 물론 무비스님이 63년 해인사 강원에서 화엄경을 집하고 ‘뭔지 모르게 좋아’ 화엄경 공부에 몰두, 탄허스님으로부터 화엄학의 전강을 이어받았으니 30여년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역경연구원에서 탄허스님 번역 화엄경을 펴낼 때 교역과 출판과정에 참여해 더욱 깊은 인연을 맺었으며, 화엄사 구공양에 힘써하며 사경을 거듭했다. 그러면서 용성 운허 탄허스님의 번역본을 수정·보완해 많은 사람들이 수지독송할 수 있는 화엄경 번역의 필요성을 느꼈다.

‘내용에 따라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현실화시키기



◇ 80 화엄경을 완역·편찬한 무비스님은 “진정한 역경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 생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시작한 것이 84년부터였다.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인 것은 청담스님과 봉림장자의 견해를 참고했지만, 역경 분야의 새로운 시도로써 스님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는다.

번역은 생동하는 작업

이 책이 지금까지의 번역과 다른 점은 여기에 있다. 짧게 단락을 나누고 그 단락의 내용을 분석하여 제목을 달아준 것이다. 단락별로 나누어 방대한 화엄경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번역·편찬의 역적이 두어진다. 경전을 한글로 옮겼다고 해서 모두 번역이 될 수 없다는 무비스님의 역경관이 스며있는 부분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일상과 의식 속에 들어와 생동하는 그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야 진정한 역경의 번역입니다. 따

라서 시대와 상황이 급속하게 변하는 이때, 경전 또한 최소한 3년마다 새로운 의식과 언어생활에 알맞도록 거듭해서 번역돼야 합니다.”

따라서 스님에게 있어 화엄경 완역·편찬은 또다른 시작인 셈이다. 무비스님은 이미 완역을 끝낸 3개월 전부터 해설을 붙이는 일에 매달렸다. 원문과 번역, 여기에 해설을 곁들인 명실상부한 화엄경 완역관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다시 화엄의 푸른 바다로 헤엄쳐 들어갔다. 그러면서 화두처럼 한말을 던진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모래알을 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일이 그렇고, 화엄경을 공부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래를 세는 일은 마냥 즐겁고 행복합니다. 바다는 더 넓고 모래는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는 세월이 끝날 때까지 참으로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정성운 기자)

새로 나온 책

▲무신론과 유신론(히시마쯔 신이찌 외 지음)=대원정사의 기획시리즈 ‘불교와 기독교 대화총서’ 제4권으로 양대종교의 차이점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제1부 ‘무신론’에서는 포스터모던 시대의 종교의 궁극적 입장을 조명하고 있으며, 제2부는 무신론적 깨달음에 대한 기독교 신학자들의 공감과 반론을 실었다. 정병조 외 옮김, 대원정사, 9천5백원.



▲혼자 살기엔 너무 쓸쓸한 세상(황정원 지음)=시인 황정원의 에세이집. 이 책에서 저자는 삶의 여정은 여러 어려운 난관들이 있을 거라고 했다.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 봉사하는 부처님의 자비사상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책만드는집, 5천5백원.

▲월경시의 전나무숲길(일지 지음)=불교인문주의자의 정신적 편력을 담은 산문집. ‘세상을 불교적인 사유방법으로 밖에 바라볼 줄 모르는’ 글쓴이가 광활한 경전의 세계를 횡단하며 문학적인 감수성과 철학적인 사색으로 일구어낸 발향과 회귀를 서술하고 있다. 문학동네, 5천원.



▲종교와 만화(클린 윌슨 지음)=종교와 아웃사이더를 연결시켜 현대문명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 속에서 참된 종교의 가능성을 찾고 있는 영국작가 윌슨의 평론집. 이 책에서 윌슨은 모든 아웃사이더는 종교적인 인간이며, 이들이 아말로 인류의 미래를 여는 열쇠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현 옮김, 하서, 6천원.

▲차 한잔(박희준지음)=차 문화포럼연구회의 회원으로 있는 박희준씨의 차를 주제로 한 수삼집. 차의 세시기와 선인들과 차에 얽힌 일화, 우리나라와 중국차를 소개하고 있다. 신이원, 6천8백원.

명사추천 불서100선

금강경

“자신을 기쁘고 자유롭게 하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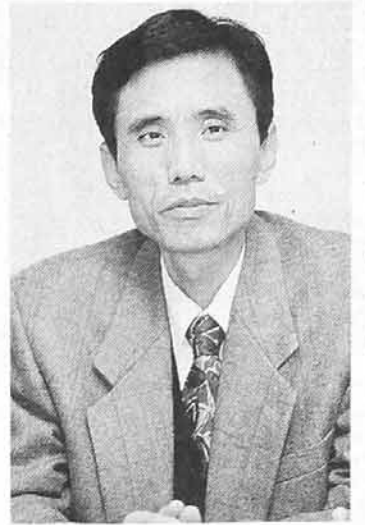
한 사람이 뛰어나가는 인생행로는 그가 지니고 태어난 업과 그가 맺은 인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다.

문명사회에서는 사람과의 만남 못지 않게 책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좋은 친구가 평생의 길동무인 것처럼, 좋은 책은 평생의 길잡이라고 생각한다.

해방통일인 내가 살아온 시대는 그야말로 ‘격동의 세기’였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술한 만남과 헤어짐, 성취와 좌절도 이러한 시절인연과 내 자신의 업이 교호작용한 과정이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지금은 서슴없이 《금강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처음으로 금강경을 만난 것은 대학 2학년 때이다. 당시는 세계관상과 자기완성에 대한 질문이 다룬 순수함과 열정, 그리고 개인적 야망들이 서로 섞여 자신의 나날 길에 대해 대단히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지금 기억으로는 지질도 형편없는 팔팔셋으로 된 금강경 주해서를 읽고 ‘아! 바로 이 길 이구나’ 하는 감동을 느꼈었다. 물론 당시는 사회변혁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보살’은 이상형의 인간이었고, 진정한 보살상을 금강경에서 보았던 것이다.



이 남 곡 (불교사회연구소장)

사회변혁과 자기구원의 이상형 제시

이외같이 무량하고 무수하며 무변한 중생을 멸도하였더라도, 실은 중생으로서 멸도를 얻는 자는 없는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하니, 수보리여, 만일 보살이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을 지닌다고 하면 바로 보살이 아니니라.

그 후 불교와 떠나있던 오랜 세월을 지나 다시 불교와 만나게 한 것도 젊은 시절 당시 너무 반복해서 지루할 정도로 느꼈던 금강경의 가르침이 내 영혼 속 깊숙히 각인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30대 후반에 와서 그동안 사회구원에 대한 사고와 방법의 근본적 한계를 절감하고, 여러 가지 입장과 사고방식에 문을 열면서 과학과 종교의 상호관계, 현대문명에서의 종교의 역할 등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할 때 금강경은 또 신선하게 다가왔다.

특히 현대과학이 최첨단의 성과로 조립한 세계의 모습이 일찍이 금강경이 설한 내용

에 근접하는 것은 이러한 모색에 용기와 신념을 주기에 족한 것이었다.

더 나아가 들면서는 내 나날대로의 초심(初心)을 행하는 사회변혁, 그후는 문명의 전환이라는 목표 속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왜 자신은 자유롭지 못하게 생각이 많이 미치게 되었나.

어떤 목적을 위해 사랑분별하며 논리를 구상하려는 노력속에 역시 ‘나’라고 하는 의식이 얼마나 뿌리 깊음을 새삼 느끼면서, 이제는 금강경을 독송하는 데서 오는 안온함과 기쁨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

의식개혁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높고, 앞으로 갈수록 문명전환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정화하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금강경과 함께 이 길을 향해 조금씩이 나아 나가보려한다.

구산선사 자료모집 문집편찬위

구산선사 문집편찬위원회(위원장 현호)는 문집에 실릴 상당부분 수기실본 편지를 시서 사진 등을 비롯한 문집간행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모집하고 있다. 문집은 전10권 내외로 발간된다. 올해 말 상당부분 첫권을 시작으로 계속 펴낼 예정이다. (02)738-7853, 0661)653-2130.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비고
1	도(道)	김정진	글수레	소설
2	불교의 체계적 이해	고익진	새터	불교학
3	돈황본 육조단경	성철	장경각	번역
4	석가모니	정태범 외	교향사	아동
5	구사학	김동화	보림각	불교학
6	마음을 비우게 재가 부처야	동봉	고려미디어	수상
7	무문관	무문에게	경서원	선종
8	세상에서 가장 슬기로운 이야기	고은	동쪽나라	아동
9	무비불이 천수경	무비	불일	경전
10	부처님 말씀	성일	법동	경전

구입문의: (02)737-0695

108개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 쓴

이야기 한국불교사 I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344면 / 값 6,000원

“구도의 불길이 한 순간도 꺼진 날이 없었던 1600년 한국불교사 이제 그 찬란한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 문화의 뿌리가 되어온 불교문화. 한국불교의 위대성과 독창성. 불교가 전래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사에 대해 우리는 얼마만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 ‘이야기 한국불교사 I’은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불교의 전반적인 모습을 108개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풀어 쓴 책으로 불교도는 물론 일반인·종교생까지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 이 때까지 발간된 한국불교사 관계 책 중에서 가장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불교모임에서 함께 읽고 토론하기에 적합한 책입니다.



누·가·불·교·를·어·렵·다·고·만·하·는·가?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 쉬운 불교책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시작하는 마음

보조국사의 《초심》을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이 책을 펼쳐들면 누구나 알기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작하는 마음》과 함께 진리를 향한 첫걸음을 옮겨 보자. 자유롭게 깨어있는 나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신국판 / 342면 / 값 5,000원

문화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죽음 뒤의 세상……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가는 인생…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저절로 얻게 된다.

신국판 / 242면 / 값 4,500원

환희롭고 평화로운 삶의 길잡이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 줄 것이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경봉대선사의 일대기

김현준 지음

“사바세계를 무대로 살아 연극 한바탕 멋있게 하라”고 당부하셨던 경봉대선사.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워준 경봉대선사.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했던 이 시대 최고의 도인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19면 / 값 4,300원



피부미용의 동의보감

한방고부미용

한의학 박사 송점식 지음

고은 피부, 건강한 삶을 원하십니까? 저자 송점식 박사는 고은 피부를 가꾸면서 불로장생의 삶을 이루는 비결을 이 한 권의 책 속에 명쾌하게 수록했다. 아울러 현대인들의 고민거리인 기미·여드름·비만증·대머리·흰머리 등 36가지 피부 트러블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효험이 큰 325가지 민간요법과 처방전을 자신의 진료경험을 토대로 선별, 집대성했다.

신국판 / 388면 / 값 6,500원